



지정학적 우려 완화되며 상승

미국-이란 협상 기대감 부상, 다만 이란의 부인으로 증시 상승폭 축소
외국인, 코스피 25거래일만에 순매수 전환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123.62pt (+4.63%)	1,029.05pt (+3.22%)	1,291.32pt (+4.85%)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21.60 원 (-10.0 원)	4.2400% (-6bp)	7,385.50pt (-0.14%)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43,201 억	-3,086 억	+5,633 억
외국인	+21,282 억	-3,445 억	+5,137 억
기관	+23,772 억	+6,179 억	-10,972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철회하고, 종전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며칠 안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고, 코스피는 장중 8%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 이란 측이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이날 KOSPI는 4.63%, KOSDAQ은 3.22% 올랐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51.1조원, KOSDAQ은 약 16.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1조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KOSPI 순매수는 무려 25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IT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건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약 2.4조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금융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제약과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美 반도체주 반등과 삼성전자의 구글 AI 반도체 수주 가능성 보도에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순환매가 진행되며 최근 부진했던 조선, 방산, 건설주가 반등했습니다. 금융, 증권, 2차전지, 피지컬 AI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최근 강세였던 백화점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ETF 리밸런싱 수요 등으로 차익실현 압력이 확대되며 기관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모멘텀 약화 지속되며 바이오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현대건설(+28.36%), 한미반도체(+24.05%), 삼성전자(+7.86%)가 올랐고, 디앤디파마텍(-7.31%), 현대백화점(-5.24%), 삼성전기(-5.04%)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